

기 관	컨슈머인사이트	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문 의	김민화 연구위원	연 락 처	02) 6004-7643
배 포 일	2022년 4월 28일(목) 배포	매 수	총 5매

포스트 코로나 해외여행, 마케팅 전략 전면 재검토 필요

컨슈머인사이트, 해외여행 계획·지출의향 추이 비교

- 해외여행 큰손, 여성에서 남성으로...
- “6개월 내 계획 있다” 남성이 여성의 1.4배
- 20대 남성이 10명 중 3명꼴로 가장 높아
- ‘이대남’, ‘이대녀’ 제치고 최대 수요층으로 부상
- ‘이대녀’는 60대이상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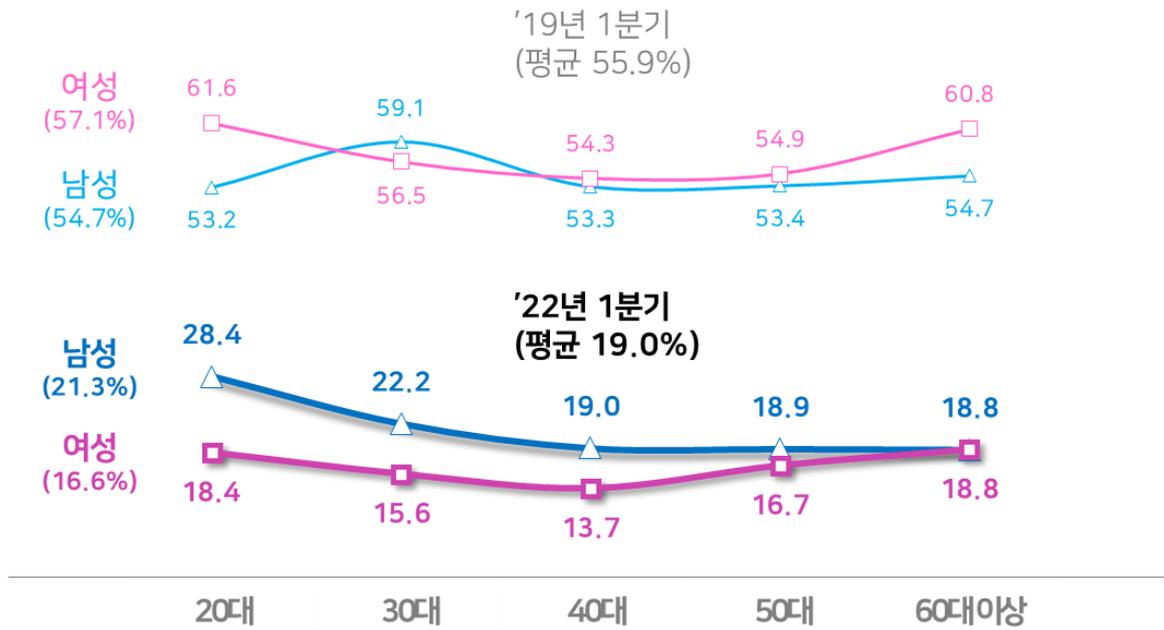
남성이 해외여행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. 껍 막혔던 해외여행의 물꼬가 열리면서 대부분 계층에서 여행심리가 상승하는 추세지만 여성보다 남성, 그 중에서도 20대 남성의 기세가 압도적이다. 과거 20대 여성이 이끌던 해외여행 시장에 엄청난 반전이 여물고 있다.

데이터융복합·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수행하는 '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(매주 500명, 연간 2만6000명)'에서 소비자에게 향후 6개월 내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지, 1년 내 해외여행비 지출 의향은 어떤 지를 묻고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했다.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의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,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마켓C(www.bigdata-culture.kr)에서 공개되고 있다.

■ 여행계획률, 여성 우위→남성 우위로 역전

6개월 내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(여행계획률)은 올해 1분기 평균 19%로 5명 중 1명꼴이었다.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의 55.9%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이지만 1년 전 같은 기간(12.5%)보다는 1.5배 이상 늘었다[그림1].

[그림1] 성x연령대별 해외여행 계획률 [6개월 이내 있다, 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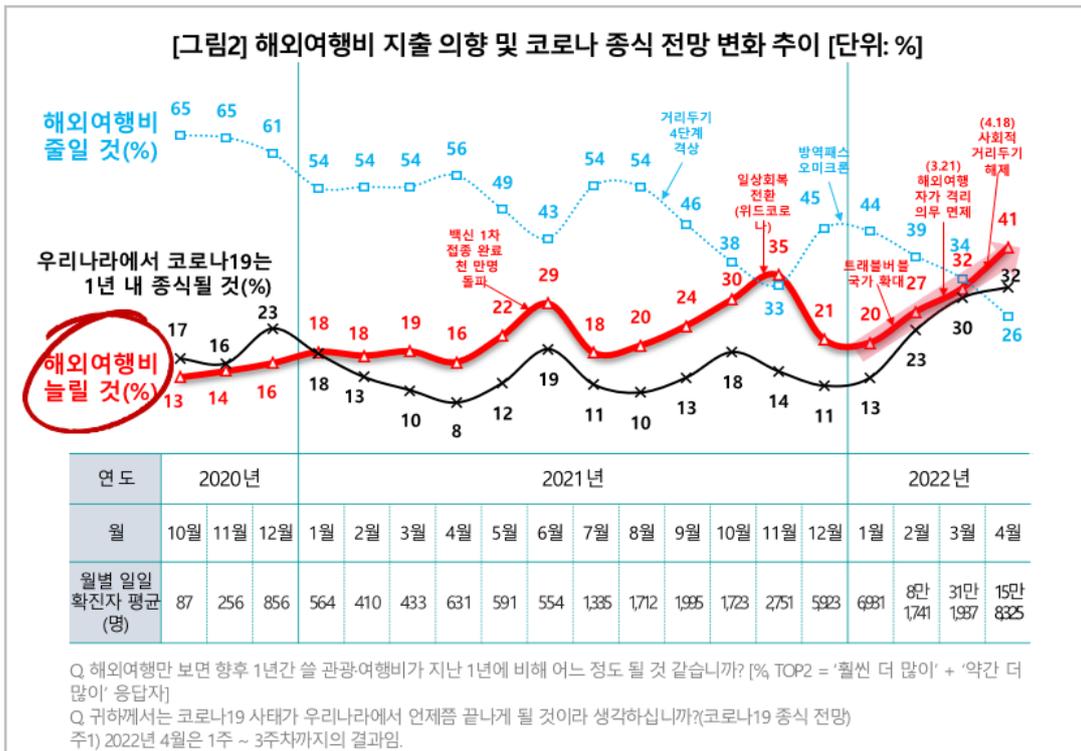
Q. 귀하께서는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 '그렇다' 응답
 주1) 2019년 1분기, 2022년 1분기 사례수는 각각 6,000명

성별로는 남성(21.3%)이 여성(15.3%)보다 많아 1.4 배에 달했고 연령대별로는 20 대(23.7%)가 가장 높았다. 같은 20 대라도 남성이 10 명 중 3 명꼴(28.4%)로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여성은 5 명 중 1 명꼴(18.4%)에 그쳤다. 코로나 이전 20 대 남성은 모든 성·연령층 중 최하위에 해당했으나, 이제 최상위로 급부상했다. 반면 20 대 여성은 모든 남성, 그리고 60 대 여성(18.8%)보다도 낮아졌다. 30 대 남성(22.2%)의 여행심리는 여전히 뜨거웠다.

코로나 팬데믹 중 20 대 남성과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? 20 대 남성은 학업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생업과 취업의 압박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세대다. 반면 20 대 여성은 과거 가장 낙관적인 계층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삶의 질 인식도 20 대 남성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했다(참고. [벼랑끝 이대녀 "이대남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"](#)). 이들은 대면접촉 기피와 위생 수칙에도 가장 민감한 계층이다. 일자리 부족,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감염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외여행을 망설이며 좀 더 관망하자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.

■ 해외여행비 지출의향, 최근 석 달 새 2배로

실제 해외여행 계획률이 아직 제한적인 것과 달리 장기적인 해외여행 심리(여행비 지출의향)는 이미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했다. 앞으로 1년간 쓸 해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물음에 '늘어날 것(많이+약간)'이라는 응답이 4월 현재 41%에 도달했다(4월 1주차 37.2%, 2주차 41.8%, 3주차 43.4%). 지난 1월의 20%에서 3개월만에 2배로 급팽창한 셈이다. 이는 위드코로나 기대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의 35%를 훌쩍 넘어선 것은 물론 코로나 전인 2019년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치다[그림 2].



코로나 이전 수년 동안 해외여행비 지출의향은 40% 초중반대를 유지했으나 경기침체, 노재팬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9.2%까지 떨어졌고(참고. [해외여행 소비심리 급랭, 국내는?](#))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는 10%대로 폭락했었다.

■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정부 조치 영향 커

해외여행비 지출의향은 코로나 종식 전망과 상관관계가 높았다. 코로나가 1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지난 2020년 6월 처음 조사되기 시작한 이후 거의 10%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번달에는 32%로 최고치를 찍었다. 해외여행비 지출 의향과 동반 상승·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.

최근 해외여행 심리는 연초 잇단 트래블버블 확산과 해외여행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(3 월 21 일), 거리두기 해제(4 월 18 일) 등의 정부 조치와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상승 동력이 강하다. 2년 넘게 금지된 욕망을 향한 갈증과 화풀이 소비 심리도 폭발 대기 상황이다.

여행심리의 폭발은 과거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. 여성보다는 남성, 남성 중에서도 30~40대보다는 20대가 큰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.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외여행 산업의 기본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.

[첨부] 해외여행계획률 변화 추이

구 분		22년 1분기 (A) (1월~3월)	21년 1분기 (B) (1월~3월)	22-21 증감률 (%p, A-B)	19년 1분기 (1월~3월)
사례수		6,000	6,000	-	6,000
전 체		19.0	12.4	+6.6	55.9
성별	남성	21.3	15.3	+6.0	54.7
	여성	16.6	9.4	+7.2	57.1
연령	20대	23.7	13.7	+10.0	57.2
	30대	19.0	14.1	+4.9	57.8
	40대	16.4	11.4	+5.0	53.8
	50대	17.8	10.5	+7.3	54.1
	60세 이상	18.8	13.0	+5.8	57.8
성by 연령	남20대	28.4	18.0	+10.3	53.2
	남30대	22.2	18.8	+3.5	59.1
	남40대	19.0	12.5	+6.5	53.3
	남50대	18.9	11.8	+7.0	53.4
	남60대 이상	18.8	17.1	+1.7	54.7
	여20대	18.4	9.0	+9.4	61.6
	여30대	15.6	9.2	+6.4	56.5
	여40대	13.7	10.4	+3.3	54.3
	여50대	16.7	9.1	+7.6	54.9
	여60대 이상	18.8	9.0	+9.8	60.8
가구원 구성	미혼	20.4	13.0	+7.4	54.7
	신혼기	19.2	11.0	+8.2	59.1
	자녀유아&성장	17.8	13.0	+4.8	57.3
	자녀성장	20.4	10.2	+10.2	54.0
	자녀성인	17.4	12.6	+4.8	57.4
가구 월 소득	자녀독립	17.8	10.9	+6.9	54.1
	300만원 미만	18.6	12.8	+5.8	38.3
	300~500만원 미만	14.8	11.7	+3.1	49.9
	500~700만원 미만	19.9	12.3	+7.6	61.3
700만원 이상	22.4	13.9	+8.5	69.0	

Q. 귀하께서는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 (여행계획 보유율) ['그렇다' 응답자]

컨슈머인사이트는 **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**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**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**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**100% 모바일 기반**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'국대패널'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.

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(연간 2만 6000명 조사)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`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`를 바탕으로 한다.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, 2017-2021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 ([리포트 다운로드 받기](#))

Copyright ©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
For-more-Information

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/Ph.D

kimmh@consumerinsight.kr

02)6004-7643

이흥인 컨슈머인사이트 대리

leehi@consumerinsight.kr

02)6004-7659